

역시! ... 한국에서 가장 빠른 광주시청 육상팀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김국영 남자 100m 10초33 우승
강다슬 여자 100m 11초59 우승
한정미 여자 400m 57초43 우승

광주시청 육상팀이 전국 최강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김국영(31)과 강다슬(30)이 제26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녀 100m에서 각각 금메달을 차지한데 이어 한정미도(26)도 여자 4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국영은 30일 여수 망마경기장에서 열린 제26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100m 결승에서 10초33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10초33은 대회 신기록이다. 올시즌 첫 대회임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기록이다.

김국영은 올시즌 세계육상선수권대회(7월)와 항저우아시안게임(9월) 출전에 목표를 맞춰 실전을 일찍 시작했다. 올해 초 유럽투어에 참가해 실내 육상 60m 경기에 출전하고 돌아와 이날 100m 첫 실전에 나섰다.

김국영은 오는 4월 19-21일 대구에서 열리는 제51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겨냥해 컨디션 끌어올리고 있다.

종별대회는 항저우아시안게임 대표선발전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목별 1위 선수가 아시안게임 우선선발 대상자가 되며 국제경쟁력(전 아시안게임 결승 6위 내 기록)까지 평가해 대표선수로 선

발된다.

목표 기록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준기록인 10초05다. 김국영은 올해 6월 26일까지 10초05의 기준 기록을 통과하면 6회 연속 세계선수권 진출을 확정한다. 10초05를 통과하지 못하면, 랭킹 포인트를 쌓아야 한다.

김국영은 '마의 10초'를 넘어서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김국영이 2017년 6월 코리아오픈 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 세운 100m 한국 기록(10초07)은 5년째 멈춰있다. 앞서 김국영은 2010년 10초31을 기록, 서말구의 한국 기록(10초34)을 31년 만에 갈아 치웠다

강다슬은 여자 100m 결승에서 11초59로 우승했다. 11초59는 1994년 이영숙이 세운 여자 100m 한국신기록 11초49이후 가장 좋은 기록이다. 하지만 강다슬의 기록은 기존 풍속(초속 2m)을 넘은 뒷바람(초속 2.1m) 탓에 아쉽게 공식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강다슬의 개인 최고기록은 2016년 제45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세운 11초63으로 다음 경기에서 새로운 기록을 기대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정미도 여자 400m 결승에서 57초43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올 시즌 첫 실전을 감안할때 선수들이 잘 뛰어줬다"면서 "김국영은 2주 전 근육에 약간 불편함을 느껴서 걱정했는데 기록이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강다슬의 기록이 아쉽다. 정말 잘 뛰어줬는데 바람에 발목을 잡혔다"면서 "다음 시합에서는 개인 최고기록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30일 여수 망마경기장에서 제26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열렸다. 금메달을 차지한 광주시청 강다슬(100m, 왼쪽부터), 한정미(400m), 김국영(100m)이 선전을 기념하고 있다. <광주시청 육상팀 제공>

탁구인들의 대축제 광주서 열린다



제68회 전국남녀종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28회 대한탁구협회장기 생활체육전국탁구대회가 빛고를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탁구협회 제공>

전국남녀종별탁구선수권대회 협회장기 생활체육전국탁구대회 4월10일까지 광주여대 체육관

탁구인들의 대축제인 '제68회 전국남녀종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28회 대한탁구협회장기 생활체육전국탁구대회'가 빛고를 광주에서 열린다.

대한탁구협회가 주최하고 광주시탁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31일~ 4월10일까지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막을 올린다.

매년 상반기 협회 주최로 대회 첫 문을 열어온 종별탁구선수권대회는 연말 종합선수권대회와 함께 국내 탁구에 양대 이벤트로 꼽혀온 최고 권위 엘리트 탁구대회다.

초등부(U-13)부터 중(U-16)·고등부(U-19), 대학부, 일반부까지 모든 등록 선수에게 기회가 열려있으며, 참가한 모든 선수가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경쟁하는 각 부 종목별 챔피언전이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 코칭스태프, 각 팀 관계자들을 포함 총인원 1300여명이 참가해 각 부에서 치열

한 열전을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전에 없던 신규 규정을 채택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단식과 복식 등 개인전에서 상향 참가를 허용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해당 연령부 안에서만 시합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해왔으나, 이번 대회부터는 U-13부(8세-13세) 선수가 원할 경우 U-16부(14세-16세) 개인전에 도전할 수 있도록 했다.

U-16부 선수가 U-19부(17세-19세)에 출전할 수 있으며, U-19부 해당 선수는 17세 이상이라면 연령 제한이 없는 일반부 출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물론 선택하는 한 부에서만 뛸 수 있고, 중복 출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대회는 각부 단체전과 함께 남녀단식과 복식이 모두 치러진다. 남녀 U-16부 결승은 대회 중반인 4월3일, 일반부 결승은 마지막 날인 4월6일 치러질 예정이다. 유튜브 KTVA TV를 통해 대회 전 경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협회는 종별대회 직후인 4월9~10일 같은 장소에서 제28회 대한탁구협회장기 생활체육 전국탁구대회도 개최한다. 전국의 아마추어 720여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역량을 선보인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비오신코리아 '2022 한국실업배구연맹전' 준우승

광주시배구협회 소속인 비오신코리아 남자실업배구팀(대표 강동완)이 '2022 신협중앙회장배 한국실업배구연맹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비오신코리아는 최근 강원도 홍천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신협중앙회장배 한국실업배구연맹전 2부리그에 출전해 충남의 ㈜연오엔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는 초청팀으로 합류한 남자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을 비롯해 남자부 1부 5개 팀(국군체육부대·부산시체육회·영천시체육회·현대제철·화성시청), 2부 4개 팀(비오신코리아·㈜연오엔), 여자부 4개 팀(대구시청·수원시청·양산시청·포항시체육회) 등 총 11개 팀이 참가했다.

경기방식은 각 부별로 풀리그 경기를 거쳐 상위 1, 2위 팀이 결승경기를 가졌다.

비오신코리아는 이번대회에서 강동완 감독을 사령탑으로 나철수 플레잉 코치(센터), 세터 김정석, 레프트 이광인·한창현, 라이트 신우성, 센터 김정민이 나서 우승에 도전했다.

하지만 감독 코치 선수 포함 모두 7명인 젊은 선수층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우승 문턱에서 아쉽게 주저앉았다.

실업배구연맹전에서 2년 연속 준우승을 차지해 전국체전 등 향후 대회에서도 입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비오신코리아 남자실업배구팀. <광주시배구협회 제공>

강동완 감독은 "생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팀 운영과 전국체전 광주대표로서 타 시도 팀보다 적은 지원금 등으로 선수층이 얇은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면서 "2년

연속 입상을 계기로 더욱 노력해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도록 맘 흘리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산악연맹 신은철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됐다

이성수·김관 상비군 발탁

광주산악연맹의 신은철과 이성수, 김관이 제42회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대회에서 각각 국가대표와 상비군으로 발탁됐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 2022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린 이번 대회에서 신은철은 남자일반부 스피드에서 2위를 차지해 국가대표 자격을 따냈다.

또, 이성수와 김관은 남·녀 일반부 컴바인(리드, 볼더링)경기에서 각각 종합 3위와 5위를 기록

해 국가대표 상비군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오는 5월에 있을 서울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과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의 국제 대회 등에 참가할 예정이다.

피킴연 광주산악연맹 회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이뤄낸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10월에 있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모비우스
- 2관 모비우스
- 3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 4관 모비우스
- 5관 배니싱: 미제사건
- 6관 모비우스
- 9관 뜨거운 피
- 7관 세네카를 뜨거운 피, 극장판 주술회전 0
- 8관 세네카를 더 배트맨, 문풀, 드라이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뮤지컬 앤Anne
일시: 2022.04.02.(토)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3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보헤미안들이 사랑한 도시, 파리
일시: 2022.04.27.(수)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



즐거움 문화산책

